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문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남	(041)338-4088	(041)338-4188
서울	(02)581-5715~8	(02)523-2284	울산	(052)274-8836	(052)268-8837	전북	(063)251-6040	(063)251-6048
부산	(051)633-6677	(051)634-2966	세종	(044)862-6336	(044)862-6226	전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구	(053)753-8980	(053)756-9049	경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북	(054)859-8170	(054)859-8175
인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원	(033)254-2442	(033)255-2083	경남	(055)246-4530	(055)245-4530
광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건축사’, 정말 고난의 환경을 가졌다

‘Architect’ in Korea,
having a really difficult environment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건축은 창작일까? 편집일까? 생뚱맞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다. 규모가 아주 작은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건축사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민간 프로젝트든 공공 프로젝트든 척박한 건축 환경 내에서 매년 건축상을 수상하는 완성도 높은 건축 작품들을 보면 이를 만들어내는 건축사들이 경이롭다. 우리 월간 건축사에 게재되는 작품들을 보면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신년 벽두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경제 순환 구조의 고장으로 생계 절벽에 매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기찬 소리로 들리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축사들 역시 절벽에 서 있는 위기의 존재는 맞다. 대형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풍요로운 건축사건 나홀로 건축사건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수시로 존재한다. 당연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다. 개인의 범위가 뭐라 할 수 없지만, 환경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나라 건축 환경은 그런 모순이 차고 넘친다. 건축 작품을 건축사의 설계의 도대로 온전히 구현해내는 과정을 굳이 표현하고 제대로 만든 용어가 ‘설계도 구현’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다. 건축 제도에서 가장 황당한 두 가지 표현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설계도 구현’이다. 취지도 알겠고, 의미도 알겠다. 하지만 얼마나 건축사의 창작 성과물인 건축이 원래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 싶다.

사실 건축사의 자질 문제는 별개다. 건축이 건축사의 설계 의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이유는 많다. 시공자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본인의 실수를 덮으려고 원작 설계를 훼손하는 일이야 하도 많아서 지적하기도 민망하다. 건축 의뢰인들이 공사 중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마음 따라, 취향 따라 바뀌는 일도 정말 많다. “내 돈으로 내 건물 짓는데, 왜 건축사가 알아알부해”라는 갑질 마인드도 일상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갑질 마인드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에서도 비밀비재하다는 점이다.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의사결정권자들은 국민의 세금 절약 운운으로 핑계 대며 원작을 훼손한다.

어디 그뿐이라? 공무원의 면피 절차인 각종 심의에 참여하는 꿈 많은 위원의 경우 그야말로 설계를 난도질한다. 경직된 건축 가이더라인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무조건”을 외치며 저고리에 양복바지를 강제로 입히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한마디로 책임 있게 주도하는 건축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라는 직제까지 만들었는데 광고업자,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 도시계획가 등 비전문가들이 민간 전문가라는 자격으로 자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에서 건축사의 건축이 완성될까? 그런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건축적 성과는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사석에서 만나는 발주자들은 한국 건축사들을 폄하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 정말 이런 환경을 어떻게 깨뜨리고 나가야 하나? 패배주의 유행은 시장에 있는 몇몇 건축사들의 냉소적 선동을 자극한다. 도대체 앞이 안 보인다... 코로나19가 갇힌들 이런 환경들이 나아질까?

